

美國 大學의 教養教育

金 璟 東

(서울大 教授)

I. 글 머리에

미국에는 지금(1981년 봄 현재 통계) 종합대학(university), 4년제 단과대학 및 2년제 대학을 포함하여 약 2,300의 대학들이 있다. 이 많은 대학들 가운데는 그 역사로 보아 오랜 것이 350년에 가까운 「하버드대학」으로부터 지난 70년대에 설립된 것들까지 있다. 학생수나 교수진의 규모로 말해도, 큰 경우 학생 8만, 교수 9천이 넘는 학교로부터 학생 125명, 교수 5명의 기관까지 있다. 물론 교수의 학문적 자질과 학생 집단의 탁월성에도 차이가 크게 미국의 대학이다. 또 하나의 특이한 측면은 그 설립 배경, 목표, 재정적 지원과 그 원천의 성격 같은 점에서 여기처럼 다양한 나라가 적을 것이라는 데서 찾아진다.¹⁾

이처럼 수가 많고 다양한 미국의 대학에 관해서 논의하고자 할 때, 우리는 그 다루는 주제나 측면이 무엇이든 당혹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아마도 얼핏 보기에 교양교육이라 하면 거의 예외 없이 대학마다 시행하고 있을 것이므로 비교적 다루기 쉬운 공통점들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가 일쑤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기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기실, 미국의 대학교육이 획일화, 표준화되어 가고 있다는 일부 개혁 주장자들의 개탄에도 불구하고, 다양성은 미국 대

학교육의 한 주요 특성인 동시에 앞으로도 그 다양성을 잃지 않아야 다가올 새 시대의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제구실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이 말은 여기에서 미국대학의 교양교육에 관하여 생각해 보려고 할 때 어떤 평균치물 얻는 다든가 아니면 모든 유형을 모조리 섭렵하는 따위의 일이 불가능할 뿐더러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상당히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일반유형을 가려 낼 수 없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그런 일반유형보다도 특이하고 전진적인 유형에 있다. 사실 일반유형이라면, 우리나라에서도 대충 도입·시행해 온 바의 것이 거의 미국식의 것임을 상기할 때 더더구나 색다른 것의 가치가 부자된다. 이런 뜻에서 이 글에서는 최근 「하버드」대학에서 실험하고 있는 <핵심 교과과정(the Core Curriculum)>을 중심으로 미국대학의 교양교육을 간단히 살펴 보고자 한다.

II. 「하버드」대학의 <핵심 교과과정>

「하버드」대학의 이른바 <핵심 교과과정>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에도 이미 널리 소개된 바 있고, 또 서울대학교에서는 이를 참고로 교양교육의 개선에 착수한 바도 있다.²⁾

그러므로, 그 자세한 내용보다는 그 정신에

중점을 두고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주로 일반교양과정의 개편을 주안으로 하는 「하버드」대학의 핵심 교과과정 개혁은 단순히 불필요하고 쓸모없는 과목들을 슈아내는 작업도 아니고, 과거의 엄격한 필수과목 이수방법으로 되돌아가려는 시도 또한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시작되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학생의 교육을 설계하는데 대학으로서 책임의식을 되살려야겠다는 의도의 한 표현이라는 것이다. 이들 개혁주도자들이 볼 때, 미국 전체는 물론, 「하버드」대학에서 일반교양교육이라는 이름아래 무책임한 잡동사니 교육을 제공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이 문제시되었다. 그런 교과과정 속에는 근본적이고 필요한 것도 있지만, 도무지 불필요한 과목들이 순전히 흥미 본위로 제공되고 있는 경우 또한 허다하다는 것이다. 결국 학생이 받아 마땅한 교육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은 학생 스스로가 구미에 맞는 과목만 선택하면 된다는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핵심 교과과정위원회의 책임자인 헨리 로소우스키(Henry Rosowsky) 학장이 떠낸 보고서에 따르면, 그와 같은 상황에서 잡동사니 교양과목들로 말미암아 학생들이 자극을 받기는 커녕 오히려 정신을 차리지 못할 지경에 다다랐으므로 이제는 교과목 선택, 나아가서는 교육의 방향설정을 학생 자신에게만 무책임하게 내어 맡길 수 없게 되었음을 지적한다. 특히 60년대부터 유행하다시피 한 소위 자유방임적인 교과과정 정책 때문에 「하버드」대학 출신자가 정작 배운 것도 없이 학위만 덜렁 들고 나간다는 사실이 우려의 과녁이 된 것이다. 그리하여 「예일」과 「프린스턴」대학 같은 데서 교과과정 개혁의 움직임이 좌절되고 있을 무렵, 「하버드」대학의 교수진은 정치학자 윌슨(J. Q. Wilson) 교수가 위원장인 교과과정 위원회의 개혁작업에 관심을 모았다. 「로소우스키」학장이나 「윌슨」교수가 보기에 30년 이상 고치지 않은 「하버드」대학의 교과과정 체계는 그 사이 굉장한 변화를 겪어온 지식 체계를 흡수하고 소화하는 데에는 이미 부적당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하버드」대학에서의 교양교육의 개혁이 밝아온 역사를 잠시 훑어 볼 필요가 있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60년대의 급진적인

학생들이 내건 과격한 요구가 어느 정도는 영향을 끼쳤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하버드」의 교양교육 개혁의 경험은 19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1872년 종래의 엄격하게 짜여졌던 교과과정의 전통이 무너지고 수정된 선택과목 체계가 도입되면서 개혁의 시도가 처음 나타났다. 그러나 1900년대에 오면 선택과목 체계는 너무 느슨해지게 되어서 학생들의 방향감각을 상실케 하는 결과를 시정하려 했다. 그 뒤 1945년, 전후 세계의 필요에 맞추기 위한 교육개혁을 염두에 두었던 제임스 코넛트(James B. Conant) 총장이 자신의 일반 교양교육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의 교양필수체계의 골격이 된 셈이다. 60년대에는 이런 광범위한 필수체계를 더욱 느슨하게 풀어 해친 시기였다. 70년대의 <핵심 교과과정>은 이것을 대치하는 개혁인 것이다.

그런데, 이번의 교양교육 개혁에서 두드러진 현상 하나는 그 바탕을 이루는 <철학적> 기초가 부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전의 교육개혁에서도 그런 요소가 결여되었던 것은 아니지만 70년대 「하버드」대학의 개혁은 20세기 후반에 살아야 하는 <교육받은 사람>(an educated person)의 뜻을 밝혀 주는 표준들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어찌 보면 좀 오만한 작업 같은 인상을 주긴 하지만 적어도 교과목의 대치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는 중요한 특성만은 부각시켜 주는 현상임에 틀림없다. 사실 오늘날 <교육받은 사람>의 뜻과 표준을 추구하는 노력은 서양의 많은 지도급 지성인들이 활발히 진행하는 일이라는 맥락에서 보면 「하버드」대학의 시도는 매우 중요한 뜻을 지닌다 하겠다.

더군다나 「하버드」대학이라면 미국 뿐 아니라 전세계의 고등교육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학교이고 보니 거기에서 시행한 교과과정 개혁이 어떤 철학적 기초 위에서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뜻을 가질 만하다. 요컨대 이번 「하버드」대학의 개혁이 갖는 뜻은 그 구체적인 교과목의 나열보다도 현대교육의 맥박을 촉진시키기 위한 새로운 철학과 방법의 모색에서 찾아진다.

그렇다면 핵심 교과과정 개발의 맥락이 되는

교육받은 사람의 표준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 이것도 장황하게 해설할 여유는 없으므로 함부만 나열하는 일로 만족할 수 밖에 없다.

1. 교육받은 사람이란 생각과 표현(특히 문장에 의한)을 분명하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2. 교육받은 사람이면 일정한 분야의 지식은 어느 정도 깊이 이해해야만 한다.

3. 교육받은 사람은 지식을 습득하고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비판적 파악을 갖출 것이며 우주와 사회와 우리 자신에 대한 과학적·심미적 이해를 갖추어야 한다.

4. 교육받은 사람이란 도덕적·윤리적 문제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와 그에 대한 생각의 경험을 쌓아야 한다.

5. 끝으로 20세기 중반에 사는 교육받은 미국인이 되려면, 다른 문화와 다른 시대에 대하여 무식하다는 뜻에서 <국지인>(우물안 개구리 provincial)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처럼 젊은이들로 하여금 교육받은 사람으로 자라도록 도와주기 위한 핵심 교과과정에서는 5개 핵심 필수영역을 두고 있다. 첫번째의 <문학과 예술> 영역에서는 위의 목표 3을 주로 추구한다. 두번째의 <역사연구> 영역은 목표 3과 5를 겨냥한다. 세번째 <사회분석과 도덕적 사유> 영역에서는 목표 3과 4를 위한 훈련에 집중한다. 네번째 <과학>의 영역은 주로 목표 3에 초점을 둔다. 다섯번째 <외국문화> 영역에서는 목표 5를 주로 다룬다. 이밖에 물론 젊은이로 하여금 정확하게 조리 있게 설득력 있게 의사소통할 능력을 기르기 위한 목표 1은 <작문>(Expository Writing) 과목을 필수함으로써 훈련되고 또 계속 다른 과목들을 들음으로써 보강된다. 제 2의 목표는 물론 종래의 전공집중을 통하여 추구한다.

현재로서는 「하버드」대학의 핵심 교과과정이

얼마만큼 성공적인지, 실용적인지, 인기 있는지 또는 그 밖에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판가름하기가 좀 이른 것 같다. 하지만 한가지 단뿔붙이고 싶은 점은 이런 종류의 대학교육개혁이 얼마나 복합적인가 하는 것이다. 「하버드」대학의 「로스우스키 보고서」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내용은 성찰해볼 만하다.

<핵심 교과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바를 주목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는 모든 학생들에게 꼭 같은 과목들을 이수케 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모든 지식의 분야에 대하여 골고루 소개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우리는 교육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읽어야 하는 <위대한 서적들>이 한 묶음 정해져 있다고 생각지 않을 뿐더러, 인문, 사회, 자연과학 등 전통적인 학문 분야의 전 분야에 걸쳐 개론과목 같은 것들을 개관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수박 겉핥기가 되는데 이런 개관이 이제는 별로 소용없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각 학과마다 제시하는 전공 분야의 필수과목들을 느슨하게 분배해서 이수함으로써 우리가 시사한 교육목표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성취할 수 있다고 보지도 않는다. 끝으로 이 핵심 교과과정은 고등교육 일반의 표본으로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기실 우리는 오늘날 고등교육의 특징이 되다시피한 획일성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참고로 이 개혁 안에서 제안한 영역별 교과목들의 보기를 몇 가지만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³⁾

(영역 I) 문학과 예술

- 희곡과 연극
- 전원적 전통
- 희극과 소설
- 중국의 회화
- 시각예술 입문
- 음악스타일의 개념
- 현악 4중주의 발달
- 바이마르 문화
- 르네상스 인간상 등

(영역 II) 역사연구

- 개발과 저개발 : 국가간 불평등의 기원
- 중국의 전통과 변화
- 현대 정치 이데올로기
- 과학혁명
- 30년 전쟁
- 유대인의 해방
- 다윈 혁명 등

(영역 III) 사회적 분석과 도덕적 추리

- 인간의 본성
- 범죄와 인간성
- 전쟁
- 혁명론
- 여성과 사회와 문화
- 문화와 인간 발달
- 법과 질서
- 민주주의 이론
- 논리학과 사유(추리), 등

(영역 IV) 과학

- 현대물리학 : 개념과 발달
- 천문학적 관점
- 공간, 시간 및 운동
- 연금술에서 분자물리학으로
- 생명의 기초
- 지구와 생명의 역사
- 생물의 진화, 등

(영역 V) 외국의 문화

- 아프리카의 미술과 신화
- 러시아문명 입문
- 현대 중동사상
- 남미 인디언 문명
- 현대 독일문화
- 국동의 소설 등

여기 나열한 과목들은 물론 보기들에 불과하고 이밖에도 상당수의 교과목이 개요, 교수, 요일 등과 함께 소개되고 있다.

III. 맺는 말

위에서 주로 「하버드」대학의 핵심 교과과정을 가지고 미국대학의 교양교육이 지니는 특성의 한 면을 보여 주려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서두에서도 밝혔듯이 대학에 따라 다르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교양교육을 생각할 때 그 밑바탕이 되는 철학이라든가 교육관 같은 것이 강조된다는 점이다.

이번의 핵심 교과과정에서는 <교육받은 사람>이라는 중요한 개념이 그 핵을 이룬다고 했다. 그 전의 1945년 「코넬트 보고서」에서는 교양교육을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의 세 영역이 지니는 특징적인 <앎의 방법> 또는 <사고방식>을 둘러싸고 규정하려 한 것이 특색이다. 그리하여, 자연과학에서는 <서술, 분석, 설명>이라는 사고방식 내지 앎의 방법이 주종을 이룬다고 보았다. 인문학이란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구실이 주가 되는 학문인 데 비해, 사회과학은 위의 둘을 종합해서 <설명도 하고 평가도 하는> 접근법을 취하는 게 특징이라 보았다. 따라서 이 세 가지 학문의 영역들이 의존하고 취급하는 생각의 양식은 각기, 자연과학에서는 <논리적>, 인문학에서는 <상상적> 및 사회과학의 경우에는 <관계적> 사고가 되는 셈이다. 이런 분류 자체에 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점은 이와 같이 다양한 <사고방식>들을 가르치는 것이 교양교육의 의의라고 생각하였다는 사실이다.⁴⁾

한편, 1960년대 전후세대의 대학생들에 의한 소용돌이가 시작될 무렵, 1966년에 「컬럼비아」대학에서는 「하버드」대학의 보고서에 이어 <제 2의 교양교육 경전>이라 일컬어지는 보고서가 사회학자 벨(Daniel Bell)에 의해 발표되었다. 여기에서는 <개념화의 방식과 방법론적인 의식>이 교양교육의 기본으로서 더 뚜렷이 부각되는게 특징이다. 이 보고서는 하버드, 시카고, 컬럼비아 등 미국의 우수한 대학과 영국의 몇몇 신흥대학들이 어떻게 교양교육을 실시하는가를 요약하면서, 교양교육이란 <학문간의 칸막이를 가로질러서 서구문명의 역사, 전통 및 그 위대한 사

상들을 다루고, 여러 학문들이 공통으로 서로 관련되는 종합적인 문제 내지 공동주제를 다루는 과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제시된 교양교과목들을 추려 예시하면, 가령 사회과학 분야의 경우 <19세기 사회과학의 출현>, <사회과학의 논리>, <신생국의 발전문제> 같은 것이 있다. 인문분야에는 <문학 비평사>, <언어의 본질>, 기타 영어 및 외국의 현대문학 강좌가 있다. 자연과학 분야 내에서도 예컨대, 과학의 전개에 있어서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다루는 과목이라든가 과학적 <방법>의 의미를 캐는 교과목, 과학과 사회의 관련성을 구명하는 <물리학과 문화> 같은 보기들이 있다.⁵⁾

오컨대, 미국의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대학들이 교양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것에다 그 나름의 철학적인 의의를 부여함으로써, 결국에는 교양교육이 단순히 대학의 전공집중 또는 특수 전문교육의 한 부속물이라든가 그것을 밟는 하나의 첫걸음 정도의 비중 밖에 갖지 않는다는 생각에 계몽을 걸리고 해 왔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오히려 교양교육은 비단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이어 주는 다리이며 동시에 전공집중교육이나 특수전문교육의 기초로서 단단히 굳히지 않으면 안될 뿐더러,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그 자체로서 교육적 가치를 인정하려는 추세가 더 강해지고 있음을 감지해야 한다.

이는 미국이 선진공업사회의 선두주자로서 기술사회의 성격을 깊이 띠어 가는 과정에서 내외로 생겨나고 있는 갖가지 심각한 사회·경제·문화적인 어려움들에 직면하여, 교육 특히 고등교육의 개혁을 통하여 이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문명사회로 전환해 나가고자 하는 인간힘의 한 모습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다가올 사회는 교육받은 사람을 요청하는 지식사회, 정신사회, <배움의 사회(the learning society)>이므로, 배움의 제도에서 가장 앞장 선 대학의 교육, 그것도 폭넓은 교양교육의 중요성을 세삼스레 인식하고 그 개혁에 임하는 자세를 주시하여 마땅할 것이다. 물론 모든 대학이 그러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영향력있는 대학이 이를 시작하고 추진하면 다른 대학들도 그 나름의 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사실 교양교육 뿐 아니라 대학교육 일반에 대한 개혁의 움직임은 이미 미국대학의 생존 자체를 위해서도 불가피한 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이런 자세에 주목하고 우리 스스로의 백년대체를 구상하여야 마땅하리라 여겨진다. *

<註>

- 1) *The World Almanac Book of Facts 1982* (New York: Newspaper Enterprise Association, 1981), pp. 165~188 참조.
- 2) 이 부분의 내용은 필자가 1982, 12, 9일자 「週刊朝鮮」에 발표한 <70년대 미국대학의 敎育改革> pp. 40~49에서 일부 옮긴 것임을 밝혀 둔다.
- 3) 여기서 소개한 「하버드」대학의 핵심 교과과정 자료는 아래의 보고서를 참조한 것이다. Harvard Committee, *Report to the Faculty and Students on the Core Curriculum* (May, 1979) Harvard Committee, *Report on the Core Curriculum* (May, 1979).
- 4) 이른바 코넬트 보고서란 Harvard Committee, *General Education in a Free Society* (Harvard University, 1945)을 일컫는다.
- 5) Daniel Bell, *The Reforming of General Education* (Columbia Univ., 1966).